날뛰는 조직폭력 '위험한 파리'

파리=정상필 특파원

살인·패싸움 등 급증…안전한 곳 없어

사건 16%가 학교폭력…여학생도 가세

'살인 부른 패 싸움에, 구역 다툼. 그리고 여학생 조직까지….'

파리 도심 내 조직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치안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리 검찰청 장 클로드 마랭 검사는 최근 '파리 조직폭력 현상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시내 폭력조직과 경찰 사이의 긴장 정도가 절정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5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특히 2008년 말부터 이 같은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4개월 동안 조직폭력 관련 범죄가 20건을 넘어섰고 상당수 사건들은 주동자 중 한 쪽 편의 누군가가 살해당하면서 결론을 맺었다"고 썼다.

지난해 12월 파리 센강 남쪽인 15구에서 폭력조직 간 다툼 끝에 20대 초반의 조직원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파리 중심인 1구에서 60여명의 폭력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였다.

보고서는 "파리 시내 어디도 이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며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구역 다툼 등을 벌이면서 각자의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조직원간 종교적·민족적 연관성은 거의 없다.

마랭 검사는 "이들은 대개 부모가 없거나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 인정 또는 보호 등 가족의 일원으로 느껴야 할 감정들을 폭력조직 내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길러지는 곳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파리에서 일어난 강·절도 1천875건의 16%는 학교 폭력이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책가방에 각종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여학생 폭력집단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camus@kwangju.co.kr

"광역경제권 중심 행정체제 개편해야"

행정체제 개편 릴레이토론

12일 강원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치안 부문의 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정치에 귀속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신윤창 강원대 교수(강원행정학회장)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제를 통해 "성장 거점과 미래 산업을 염두에 두고 광역경제권의 시각에서 시·군 통합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표 강원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 정부가 자기 재원을 갖고 실질적인 자치를 해보고 난 후에도 행정체제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자치와 발전을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시·도의 폐지나 시·군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행정체제 개편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해야 할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주민 관심이 가장 높은 치안과 교육 문제는 사실상 제외돼 왔다"며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자치경찰제는 재원의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일보사가 주관하고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 이계진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공동 주최했다. 제주와 전주에 이어 공통, 지역 주제로 나눠 세번째로 개최됐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연무 휩싸인 건물들…中 대기오염 심각

중국이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12일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시 건물들이 연무에 싸여 있다. /연합뉴스

美 6자회담 수석대표 보즈워스 前 주한 대사

미국 국무부가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전 주한 대사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앞둔 상황에서 6자회담 대표로 누구를 기용할 지는 민감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현재 미국 터프츠대학의 법학 및 외교전문대학원인 플레처스쿨 학장으로 일하는 보즈워스 전 대사는 6자회담 미국측 대표 임명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고,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에 대해 설명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北, 위성 운반체로 대포동 2호 발사할 수도"

美 군사전문가 주장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가 북한의 위성운반체 발사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 군사전문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기술연구원은 지난달 말 '북한 탄도 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개발 업데이트'라는 글에서 "북한이 올해 봄이나 여름에 위성운반체 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1~2개의 대포동 2호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포동 2호가 위성을 쏘아 올리는 위성운반체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빅 연구원의 이런 주장은 우리 정보기관이 과거 추정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5년 2월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대포동 1호(2천km급)는 1998년 8월 인공위성 발사시 운반체로 사용된 바 있고 대포동 2호(6천km급)는 현재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8년 8월 발사된 대포동 1호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C 미사일 로켓을 각각 1단, 2단으로 장착한 것으로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됐다(위성운반체)는 것이다.

발사 당시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아주 작은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